

The Nam Times
 137-857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1 강남빌딩14층
1950년 12월 1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1964년 등록번호 서울다06425

http://www.lawtimes.co.kr

法律新聞

2008년 11월 3일(월요일) 【제3694호】

발행인·회장 李宅珪	
사장 李榮斗 인쇄인 金圭錫	
편집인 姜海龍 편집국장대행 申連洙	
월구독료 6,000원 [매주 월·목요일 발행]	
구독료납입 : 신한은행 온라인 100-000-488596	
●사장실 : (02)525-7426/7	●편집인실 : (02)525-7426
●편집국 : (02)3472-0604/5	●구독신청 : (02)3472-0602/3
●출판국 : (02)3487-1417/8	●광고안내 : (02)3472-0601
팩시밀리 : (02)3472-0606 (02)3472-0623	
E-mail : desk@lawtimes.co.kr	

강한 검찰보다 바른 검찰로... 새 비전 제시

林 검찰총장 '60주년' 기념사 “국민 실망시키고 수사절차 소홀한 적도 있어...”

‘新 검찰인’ 육성위해 전문분야 세분화... 해외연수 등 확대
 수사인프라 선진화 위해 수사典範 제정... 압수수색 기준 제시
 인권존중·수사효율성 동시 추구... 형사사법제도 개선 추진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검찰이 그간 국민에게 일부 실망을 끼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는 사법부 과거사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 이후 시민단체 등 사회일각에서 제기한 검찰의 과거사 반성문제를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우회적인 유감표명 방식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총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이러한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법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다”며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지나쳐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 총장은 “앞으로 검찰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며

“강한 검찰보다는 바른 검찰의 길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소외됐던 피해자 권익옹호에 만전을 기하는 검찰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와 기능을 회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선진 수사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검찰 △국제적 역량을 갖춘 ‘세계속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임 총장은 밝혔다.

‘검찰 미래발전전략’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검찰 미래발전전략은 ‘국민을 위한 선진 일류 검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바른 검찰, 실력있는 검찰, 따뜻한 검찰’을 목표로, 신(新) 검찰인 육성과 수사인프라 선진화, 형사사법 제도개선 등 3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시대변화에 맞는 신 검찰인 육성을 위해 전문분야를 100여개로 세분화해 1인 1전문분야를 의무화하고, 1검찰청 1학술연구회 설치를 통한 학계와의 교류강화,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 확대 등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종 교육성과를 검사평가에 반영하고 소속검사의 업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면으로 계속】



역대 검찰총장 한자리에

검찰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디지털포렌식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이선중 14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검찰총장 16명과 검찰간부들이 이견주 과학수사기획관의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류인하 기자

법무법인 설립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Jisung Horizon)’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성과 법무법인 지평이 합쳐 탄생한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수준높은 전문성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윤리적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명문 로펌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한층 강화된 전문성으로, M&A, 구조조정·도산, 금융·증권, 부동산·건설, 소송 및 해외투자 등 제반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신뢰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고객의 진정한 법률적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 10.

대표변호사 이호원 박동영 조용환 강 성 양영태

고 문 송기방 김경림

변호사 강경국 강원일 강울리 고태관 구동균 권용숙 길영민 김남연 김도요
 김범희 김상준 김성수 김소연 김영식 김영주 김이태 김재광 김재영
 김주현 김지연 김지홍 김태일 김혜라 김희석 남수진 류혜정 마명원
 마상미 명한석 박상배 박선희 박성철 박승용 박영주 박용대 박형삼
 배대준 배상근 배성진 백상우 변희경 설동근 성보석 손한규 송성현
 송한사 신 민 신인수 신진호 안상훈 양석표 이상운 우승원 유정환
 윤홍배 이광선 이동현 이민서 이병기 이병래 이소영 이승현(29기)
 이승현(30기) 이승훈 이연주 이은영 이은우 이정훈 이춘원 이태현
 이행규 임성택 임윤선 임지아 정 원 정정태 정 철 조병규 조선영
 조용기 채희석 최수진 최승수 최정규 최정식 최진숙 최찬욱 허성필
 홍성준 황승화 황인영 황호동

미국변호사 공수한 김지현 김혜연 노충욱
 문성호 박형준 여인봉 유광수
 이상희 최선호 최윤희 황주원

영국변호사 송유진 여인봉

호주변호사 한승혁

중국변호사 경영동 김옥림 김창화 원성철
 임 청 임 호

러시아변호사 이승민

베트남변호사 Bui Tran Dang Khoa Nguyen Van Dam

공인회계사 구상수 류용현 임승혁

영인변호사



송기방 교문변호사

서울형사지법, 부산고법 부장판사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이춘원 변호사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졸업 (해상법 LL.M)
 사법연수원 제22기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홍성준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사법연수원 제23기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김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하노이 지사장
 사법연수원 제28기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김범희 변호사/변리사

사법연수원 제29기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공과대학 졸업



신진호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김희석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송유진 영국변호사

University of Southampton
 해상·국제무역 LL.M)
 England and Wales 변호사



지평지성
 JISUNG HORIZON

■주 사무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02)6050-1600 Fax: 02)6050-1700
 ■강남본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14층 Tel: 02)2009-7500 Fax: 02)2009-7520
 ■강북본사무소: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02)6230-7400 Fax: 02)6230-7610
 ■상해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시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910-7510 Fax: 84-8-910-7511